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11.15~18)

1. 지소미아 관련

□ [언론 동향]

- 환구망(环球网)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여전히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인용 보도¹⁾
- o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미국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계속되는 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고 강조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1월 15일 제51차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함께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다고 인용 보도²⁾
- o 본 회의에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함께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 공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본 협정의 종료는 정보 공유 업무 효율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
- CCTV뉴스(央视网新闻)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 의견을 인용 보도³⁾
- o 군사 전문가 曹卫东 연구원(海军某研究所)은 지소미아 체결 초기부터 한국은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협정은 미국의 아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평가
- o 또한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1) 「韩日军情协定即将失效 文在寅再次表态：很难维持」, 『环球网』(2019. 11. 15)

2) 「美防长向韩“施压”：提高防卫费分担额、恢复韩日军情共享」, 『中国新闻网』(2019. 11. 15)

3) 「韩称不与日续签“军情协定”，专家：棋子不好使，美国急了」, 『央视网新闻』(2019. 11. 17)

만약 종료된다면 미국의 아태 전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국의 안보 위협 감소로 주변국은 오히려 반길 수도 있다고 분석

- 인민일보 해외망(人民日报海外网)은 11월 17일 방콕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졌으나, 진전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⁴⁾

o 회담 시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유효기간 연장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응하지 않았음.

-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11월 17일 진행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인용 보도⁵⁾

o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한국은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이전의 입장을 번복해야 한다고 언급

- 로우중랑장(老牛中郎将)은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때문이라고 분석 보도⁶⁾

o 최근 미국 국방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방한하며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

o 또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일본에 수출 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출 제한 조치 해제 없이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기대했던 아베 정부는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분석

2. 일본의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관련

□ [언론 동향]

4) 「日韩《军事情报保护协定》续签无望? 防长会晤未获进展」, 『人民日报海外网』(2019. 11. 18)

5) 「日韩防长在泰国举行会谈 日媒称双方分歧依旧」, 『中国经济网』(2019. 11. 18)

6) 「安倍押注美国施压文在寅, 结果特朗普放狠招, 安倍自己也成冤大头」, 『老牛中郎将』(2019. 11. 17)

- 환구망(环球网)은 7월 수출 제한 조치 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에 액화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고 인용 보도⁷⁾
- o 이번 수출 허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1월 19일 한·일 양국이 제네바에서 제2차 WTO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용 보도⁸⁾
- o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 허가과 관계없이 양자회담의 목적은 수출 제한 조치 철회이며, 만약 일본이 다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언급
- o 또한 양자회담은 WTO 분쟁 해결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소미아와도 무관하다고 강조

7) 「日本政府“开绿灯” 批准日企对韩出口氟化氢」, 『环球网』(2019. 11. 17)

8) 「韩方启程参加韩日世贸争端第二轮磋商 吁日方配合」, 『中国经济网』(2019. 11. 18)